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백)부활 제 4 주일 (성소 주일) **2025년 5월 11일 (제2133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토/일(8am~4p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 국 학 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 심 단 체	레지오마리애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 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 사	주 일 미 사	오전 8시 / 11시
	평 일 미 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 ·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 사	고 해 성 사	미사 30분 전
	병 자 성 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 배 성 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사도행전 13,14.43-52

화 답 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요한 묵시록 7,9.14ㄴ-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요한 10,27-3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성가]									
8시	입당	55	봉헌	218	성체	158	파견	132	
11시	입당	128	봉헌	217	성체	163, 183	파견	132	

부활 4주일 (성소주일)	5월 11일(주일)		5월 13일(화)	5월 14일(수)	5월 15일(목)	5월 16일(금)	5월 17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명국 바오로	이명련 파트리샤					안나 요아킴회
독 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정영희 글라라	김학철 요한 이경란 베로니카					안나 요아킴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이성연 베로니카					이성연 베로니카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샘이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앞날을 성자의 권능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세상 일을 하면서도 생명의 샘으로 이끄시는 좋은 목자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 **부활시기 신앙의 신비**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받으소서

■ **부활 삼종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매일 미사 114쪽 참조

■ **5월 성모성월**
- 5월 미사 전 기도는 매일미사 175쪽 성모성월 기도문을 바칩니다.

■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 지향(매 미사 전 30분 시작)**
-5/11(일)-5/17(토):가톨릭 교회의 사목자들 위하여
-5/18(일)-5/24(토):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5/25(일)-5/31(토):육신과 정신과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5월 17일 토요일 미사전례 :** 안나 요아킴회

■ **한국 성지순례단 5월4(일)일-5월 16일(금)**
-한국성지순례 동안 화-금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토요일 11시 미사와 주일 8시와 교중미사**가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 8시 미사, 교중미사는 예수회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 **5월 성경 통독**
- 콜로새 3,1-4,18

■ **청년 예비신자교리 및 재교육** (문영균 수사님)
- 일시: 5월 11일(일), 대건관 4호

■ **북가주 청년 피정**
(Bay Area Korean-American Young Adult Retreat)
- 일시 : 6월 27일-29일
- 장소 : San Damiano Retreat Center, Danville, CA
- 신청 : www.unitasbayarea.org
- 문의 : unitastretreat@gmail.com

■ **성모님의 날 행사(배 위에서)**
- 일시 : 5월 24일(토), 오전 11:30, Luxe Cruises – 오후 4시
- 주소 : 2394 Mariner Square Drive STE B. Alameda, 94501
- 대상 : 본당 신자
- 신청 : 4월 20일(일)부터, 오전 8시 미사 후 사무실이나, 교중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마감일 : 5월 18일(일)
- 참가비 : 70세 이상 10불, 70세 이하 30불
  어린이/청소년 10불

■ **모임 및 회의**
- 샌리앤드로 ; 5/11(일)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라모린다 : 5/11(일) 교육관 107호
- 오클랜드 : 5/18(일) 교육관 106호
- 콘트라 코스타 : 5/18(일) 교육관 107호
- 리치몬/버클리 : 5/18(일) 교육관 201호

■ **밥나눔 안내**
- 어머니날을 맞아 사목위원회에서 전신자에게 곰국을 드립니다.

■ **어머니 날 5월 11일**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미사 참례하신 어머니께 코사지를 달아드립니다.
-어머니 날 교중미사 후 전 신자 점심이 있습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마리아,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정연중비오,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이은자마트로나 김옥자마리아, 유낙양베로니카, 장민우,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쥴리율리안나, 조지현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조진행바실리오, 김혜숙아네스

■ **본당 탁구대회**
- 일시 : 5월25일(일)
- 신청: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 **2차 헌금 안내**
- **5/18(일)** 지역이웃돕기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성당 내 안전 유의**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평일 성당 출입 안내**
- 월요일~금요일 평일 낮에 성당 출입은 63가 게이트로 출입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감사합니다**
- 어머니날 코사지 준비를 도와주신 하상회에 감사드립니다.
- 어머니날 곰국을 준비해주신 사목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율리안나(5/13)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2025년 제62차 성소주일 교황 담화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제62차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을 선물로 아낌없이 내어 줌으로써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달라는 격려의 초대를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성소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 주신 귀중한 선물이며 자기 밖으로 나가 사랑과 봉사의 여정에 나서라는 부르심입니다. 평신도로, 수품 직무자로, 또는 축성생활자로 부름받는 교회의 모든 성소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과 당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요즈음 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생각할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젊은이들은 고용 불안과 심각한 정체성 위기, 곧 의미와 가치의 위기를 경험하곤 하는데, 디지털 세상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중심적인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전쟁의 잔혹함은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충만한 삶에 대한 희망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확실함 안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으며, 희망의 순례자로 부름받으며 파견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의 우리 어른 구성원들과 특히 사제들은 젊은이들의 성소 여정을 인정하고 식별하며 동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사랑의 선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여러분 안에 일깨우시는 성령과 함께 그 성소 여정을 시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 중 략 -------

우리는 식별 여정의 결과로 우리의 성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식별의 여정은 결코 고독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서둘러 결정하라고 다그치는 한편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열려 있게 하는 침묵의 경험을 방해하는 줄기찬 소음을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는 소리를 경청하고 하느님께 여러분을 위한 하느님 꿈이 무엇인지 여쭈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특정 상황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의식적이고도 자유롭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을 알고자 한다면 기도의 침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안의 묵상은, 무엇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세상의 주변부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선물이 되게 할 때 우리 모두 희망의 순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이들은 배척받고 상처입었으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수많은 형제자매의 부르짖음을 결코 못 들은 척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소는 빛과 위안이 절실히 필요한 자리 그 어디든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평신도들은 사회적 직업적 헌신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한 '소금과 빛과 누룩'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목자와 성소 지도자, 특히 영성 지도자는 하느님의 '교육 방법'을 반영하는 희망과 인내와 신뢰로 젊은이들을 기꺼이 동반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젊은이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여정에서 하느님 현존의 표징을 식별하고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뢰할 수 있고 현명하며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삶과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를 증진하고 저마다 주님 목소리에 영적으로 열려 있도록 돕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 사목 계획에서 성소 동반을 위한 적절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목자, 수도자, 선교사, 부부가 필요합니다. 성소는 결코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마는 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성소들을 낳을 때 살아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기쁨의 원천임을 자기 삶으로 선포하는 희망의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계속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추수할 새 일꾼들을 청합시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르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교회의 어머니시며 성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전구에 맡겨 드립니다. 희망의 순례자로 복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저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동반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2025년 3월 19일
프란치스코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3명	151명	194명

주님 부활 대축일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기타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이정연(5),원광희(1-4),김원덕(5),소명환(5-8),조진행(5),조우송(5),유윤미(5),김영길(5),황혜정(1-6),조관식(1-4),이명란(5),최삼남(4),이욱경(4-5),한치용(4-6),최정안(5-6)							소명환 이명란	이욱경	김영희,조우송 이욱경,이명란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5/11(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5/17(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민소연	익명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프란치스코 교황님	익명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연	요한 바오로2세 교황님	익명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연	김마르코	가족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박영자 클라라	이수나 유스티나		생	민형석	익명
	연	박종섭 요셉/정율리안나	가족		생	전윤자데레사 가정	익명
	연	김정희 율리엣다	가족		생	강루시아 가정	익명
	연	백상권 요한	송수산나		생	염파트리샤/바오로 가정	익명
	연	박병순 데레사	권영현 바실리오		생	황데레사/말찌나 가정	익명
	연	김재성 제이슨	김케넷스 가족		생	이요안나/안드레아 가정	익명
	연	오인구	가족		생	채헬레나/토마스/줄리 가정	익명
	연	양정숙 요셉	양안나		생	채루까/셀리나 가정	익명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양안나		생	송베로니카/안드레아 가정	익명
	연	부홍신 마티아	부건화 요셉		생	지요한/구네군다 가정	익명
	연	이욱임 마리아	차영화 리디아		생	이종규미카엘/로사 가정	익명
	연	전데레사의 부모님	전데레사		생	전진영 베로니카	익명
					생	유리디아 가정	익명
5/11(일)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김은숙 분다 가정	익명
	생	장민우	전데레사		생	안아네스/시몬 가정	익명
	생	이재우 야고보	이카타리나 가정		생	본당의 모든 아픈 가정들	익명
	생	안기민 신부님	송아네스		생	아픔속의 모든 이산동포들	익명
	생	전데레사 가정	송아네스		생	안기민사도요한 신부님	익명
	생	조진행 바실리오 가정	송아네스				
	생	조진행 바실리오 가정	부건화 요셉				
	생	채성일 토마스 가정	송아네스				
	생	전석영 스텔라	전데레사				
	생	브랜돈	전데레사				
	생	발바라 부르스	전데레사				
	생	김영선 안젤라 가정	김엘리사벳				
	생	황정숙 말찌나	김엘리사벳				
	생	주정희 마리아	익명				
	생	이선미 에스터	익명				
	생	채용분 헬레나	채쥴리아				
	생	이은주 아네스	유니온 구역				
	생	전데레사	전알렉스				
	생	황정기 율리안나	김엘리사벳				
	생	채용분 헬레나	김엘리사벳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

폴김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